

이원진 사장 '수익구조' 주목

(VD사업부장)

TV·가전사업 돌파구 찾는다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회의

이 사장, VD사업부장으로 회의 참석 'AI 통합기업' 강조... 첫 시험대 올라 프리미엄 제품 경쟁력 강화 등 논의



가 통상 연말 정기 인사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5월 사업부장 교체는 이례적이다. 전임 용석우 사장은 DX부문장 보좌역으로 이동해 AI와 로봇 등 미래 사업 관련 자문 역할을 맡게 됐다.

이원진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장(사진)이 17일 취임 후 첫 글로벌 전략회의에 참석했다. 5월 원포인트 인사로 TV 사업 지휘봉을 잡은 뒤 처음 열리는 회의로, 적자로 돌아선 TV·가전 사업의 하반기 전략이 논의되는 자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경기 수원사업장에서 노태문 디바이스경영(DX)부문장 주재로 VD·생활가전(DA)사업부 글로벌 전략회의를 진행했다. 16일 MX사업부를 시작으로 18일까지 이어지는 글로벌 전략회의의 이틀째 일정이다. 글로벌 전략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 열리는 정례 회의로 부문장과 주요 경영진, 해외 법인장이 모여 상반기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판매 전략을 수립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 사장이 VD사업부장에 오른 뒤 처음 맞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

인사 배경에는 TV·가전 사업 부진이 자리하고 있다. VD·DA사업부는 지난해 4분기 6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직전 분기 1000억원 손실에서 적자 폭이 확대됐고, 연간 기준으로도 2000억원 손실을 내며 전년도 1조7000억원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TV 시장 1위를 20년 넘게 유지하고 있지만 수익성은 악화하고 있다. TCL과 하이센스 등 중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OLED 등 프리미엄 제품군까지 경쟁이 치열해졌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글로벌 TV 시장이 2028년까지 연평균 1.7%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사장은 구글코리아 대표와 구글 북미 광고솔루션 부사장을 지낸 마케팅·플랫폼 전문가다. 2014년 삼성전자에 합류

한 뒤 글로벌마케팅실장과 북미총괄 등을 거쳤으며,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FAST) 서비스인 삼성 TV 플러스 사업을 맡아왔다. 이번 인사에서는 서비스비즈니스팀장도 함께 맡게 됐다.

삼성전자는 삼성 TV 플러스 등 서비스 사업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삼성 TV 플러스의 전 세계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지난 2월 1억명을 넘어섰다. 현재 30개국에서 4300개 채널과 7만6000여 편의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별 판매 전략과 AI TV 판매 확대 방안, 프리미엄 제품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TV 수요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하드웨어 판매 중심 사업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지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 사장은 취임사에서 칩부터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AI 통합 기업'으로의 도약을 강조한 바 있다. 서비스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TV 사업의 수익 구조를 어떻게 바꿔 나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삼성전자는 18일 전영현 부회장 주재 DS부문 회의를 끝으로 사흘간의 글로벌 전략회의를 마무리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포스코가 17일 광양제철소 전기로 공장을 준공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정인화 광양시장, 김태군 전남도지사, 권항엽 국회의원, 김민석 국무총리,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김성호 포스코노동조합 위원장, 이희근 포스코 사장, 박성현 광양시장 당선인. /포스코

포스코, 국내 최대규모 전기로 준공

저탄소 철강 기술·생산체제 고도화

포스코가 전남 광양에 연산 250만 톤 규모의 대형 전기로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탄소저감 강제 생산에 나섰다. 강화되는 글로벌 탈탄소 규제에 대응해 저탄소 철강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수소환원제철(HyREX)로의 전환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포스코는 17일 전남 광양제철소에서 광양 전기로 준공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국내의 탈탄소 정책이 부응하고 고객사의 탄소저감 제품 공급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4년 2월 전기로 신설에 착수했다. 이번에 준공된 전기로는 단일 설비 기준 국내 최대 규모로, 연인원 27만 명의 공사 인력과 약 6000억원이 투입됐다.

철광석과 석탄(코크스)을 고로에 투입해 쇳물을 생산해 전로에서 정련하는 고로-전로 방식은 고품질 철강의 대량 생산

이 가능하지만 탄소 배출량이 높다. 반면 전기로는 스크랩(고철)을 재활용해 고로 대비 최대 약 75% 탄소감축이 가능하다.

정인화 포스코 회장은 "오늘 준공한 전기로는 단순히 하나의 설비를 추가한 것이 아닌 탈탄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포스코는 글로벌 고객사의 저탄소 강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 라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철강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김 총리는 "광양제철소 전기로 준공은 친환경 산업으로 진화하는 철강산업의 미래를 상징하는 사건"이라며 "철스크랩의 품질 개선과 수급 안정화를 지원하고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LG이노텍, 반도체 기관 사업 본격화

자율주행·AI 서버 등 고부가 시장 진입 이달 베트남 반도체 기관 신공장 착공

LG이노텍이 반도체 기관 사업을 2031년까지 영업이익 1조원 규모로 육성한다. 통신용 기관에서 확보한 세계 1위 기술력을 토대로 인공지능(AI) 서버용 시장 진입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조지태 패키지솔루션사업부장(전무)은 지난 16일 서울 강서구 마곡 본사에서 열린 미디어 테크 데이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새로 열리는 기관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해 2031년까지 패키지솔루션사업을 매출 3조원, 영업이익 1조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패키지솔루션사업은 지난해 매출 1조7200억원, 영업이익 1289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보다 18% 늘었고 영업이익은 82% 급증했다. 전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에 불과하지만 영업이익 비중은 19%로, 적은 매출로 높은 수익을 내는 고부가 사업이다.

성장의 핵심은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FC-BGA) 기관이다. PC와 AI 서버의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고성능 칩에 쓰이는 대형 고부가 기관으로 면적이 넓고 층수가 많아 공정 난도가 높은 만큼 부가가치도 크다.

LG이노텍은 2024년 말 글로벌 고객사에 PC용 기관 양산을 시작했으며 3분기부터 같은 고객사를 대상으로 PC용 CPU 제품 양산에 들어간다. 서버용은 용도에 따라 진입 시점을 구분했다. 서버 네트워킹용은 올해 하반기, 학습·추론용은 2027년 양산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회사는 2028년까지 자율주행과 AI 서



LG이노텍 패키지솔루션사업부 관계자들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정호 패키지솔루션마케팅담당(상무), 조지태 패키지솔루션사업부장(전무), 명세호 패키지솔루션개발담당(상무), 남상혁 패키지솔루션연구소장(연구위원). /LG이노텍

비용 등 고부가 시장에 단계적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AI 시장이 학습 중심에서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하는 방향으로 재편되면서 CPU 수요가 늘고 있다. 후발주자인 LG이노텍으로서는 새 진입 기회를 맞은 셈이다.

LG이노텍은 이달 베트남에 반도체 기관 신공장을 착공한다. 지난 4일 체결한 베트남 1차 투자 규모는 1조원으로, 무선주파수 패키지형 시스템(RF-SiP)과 플립칩 칩스케일 패키지(FC-CSP) 등 통신·모바일용 기관이 중심이다. 서버용 기관 투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확정 시 전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회사는 베트남과 함께 구미 등 국내외 생산지를 검토해 단계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RF-SiP 기관은 회사의 주력 제품으로, 무선통신 부품을 하나로 묶은 통신용 반도체를 메인보드와 연결한다. LG이노텍은 2011년 핵심 증인 코어를 제거한 코

어리스 기관을 세계 최초로 양산해 두께를 기존보다 20% 줄였다.

여기에 신호지연이 적은 소재와 특수 처리한 구리를 적용해 송수신 과정의 신호 손실량도 70% 낮췄다.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LG이노텍은 10년 연속 글로벌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다. 주요 고객사 기준 점유율은 지난해 약 65%에서 올해 80%까지 확대될 것으로 회사는 보고 있다.

RF-SiP 기관은 기술 고도화도 진행 중이다. LG이노텍은 구리 기둥 위에 솔더볼을 얹는 코퍼 포스트(Cu-Post) 공법을 세계 최초로 적용해 부품을 더 촘촘하게 배치하고 기관을 얇게 만들었다. 그 결과 쌀알 두 개 크기 기관에 무선통신 부품 100여 개를 담은 세계에서 가장 얇은 5G 용 기관을 구현했다.

남상혁 패키지솔루션연구소장(연구위원)은 "차세대 코퍼 포스트 기술로 6세대 이동통신(6G) 시대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LS전선, 싱가포르 전력청 프로젝트 수주

1400억 규모 초고압 케이블 공급

LS전선이 싱가포르 초고압 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전력망 시장 입지를 강화했다.

LS전선은 싱가포르 전력청으로부터 약 1400억원 규모의 초고압 전력망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서 LS전선은 400kV 및 230kV급 케이블을 공급한다.

LS전선은 LS에코에너지와 함께 2010년부터 싱가포르 초고압 케이블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양사는 축적된 기술력과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싱가포르 국가 전력망 구축에 참여하며 핵심 공급사로 자리 잡았다.

LS전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초고압 직류송전(HVDC) 케이블과 초고압 해저

케이블을 상용화한 기업이다. 유럽에서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HVDC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글로벌 전력망 시장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관계사인 가온전선의 미국 자회사 LSCUS는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수조원대 버스덕트 장기공급계약을 잇달아 체결하며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형원 LS전선 에너지·시공사업본부장은 "AI 시대의 경쟁력은 결국 전력 인프라에서 나온다"며 "LS전선은 AI 데이터센터 송전망부터 내부 배전 솔루션까지 아우르는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LG전자, 유럽 히트펌프 사업 순항

대규모 주거단지 연이어 수주

LG전자가 히트펌프 본고장인 유럽에서 대규모 주거단지 수주를 잇따라 따내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고효율 인버터 기술과 친환경 냉매, 현지 주거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앞세워 유럽 냉난방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최근 스페인 마드리드 인근 갈레 푸에르타스 아르마다스 지역의 1000여 세대 규모 주거단지의 냉난방 솔루션을 수주해 고효율 대용량 히트펌프

인 'LG 멀티브이아이' 설치를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LG전자는 프로젝트 초기부터 설계-인증-설치 등 단계별로 현지 고객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글로벌 HVAC 기업들과의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LG전자는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의 주거용 레지던스인 '킹스 서클'과 '더 윈'에도 멀티브이아이와 멀티브이에스를 중심으로 500여 세대에 맞춤형 히트펌프 솔루션을 공급 중이다.

/차현정 기자